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존·활용' 두 토끼 잡는다

각종 문화재·건축자산 지역성·정체성 살리기 시, 용역비 5억원 들여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간판 개선·지중화 사업·보행환경 조성 등 추진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근대역사 문화 공간에 대한 목포시의 큰 그림 그리기가 본격화된다. 공간 내 산재된 각종 문화재와 건축자산의 지역성과 정체성을 담보하면서 '보존'과 '활용' 두 마리 토끼를 잡아내는 게 이번 그림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시는 첫 단계로 향후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등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최근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용역비만 5억원 규모로 비중이 큰 용역이다. 이번 용역은 공간 내 분포된 근대건축자산과 거리경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기본계획 및 관리지침, 경관 가이드라인 방안 등을 도출해 향후 시범사업 세부추진계획과 사업 확보의 기초를 마련하는 게 목표다. 특히 이 같은 큰 그림 속에 들어갈 소규모의 그림도 본격적으로 그려진다. 소규모 그림은 1897 개항문화거리 가로

조성사업, 개항문화거리 간판개선 사업, 1897 개항문화거리 지중화 사업, 근대역사길 안전한 보행환경개선 사업 등 크게 4가지다. 먼저, 개항문화 거리 가로조성은 다수 문화재와 건축 자산이 산재한 자원을 활용, 개항 당시 시대적 모습을 재현해 특화시키는 것이 골자다. 사업 대상지는 총 연장 1.95km로 4개 코스로 나뉘 추진된다. 개항문화거리(김영자 갤러리-유달 초) 750m, 목포진 테마거리(만호로 29번 길) 170m, 목포 일변가(여객터미널-목포근대역사관) 600m, 청춘로(오거리-선구의 거리) 430m 등이다. 목포시는 사업비 총 33억8000만원을 투입해 근대역사문화 공간 조성(큰 그림)과 연계된 콘텐츠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특성·역사성·예술성을 나타낼 수 있는 창의적 공간 디자인을 연출할 계획이다. 또 모양과 크기, 디자인이 제각각인 간판 개선 사업도 진행된다.

이 사업은 오거리-평화선구점에 이르는 총 연장 430m에 걸쳐 간판 282개(건물 81동, 사업대상 업소 112개소)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원이 소요된다. 목포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지난 8월 행안부 예비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 16일 최종 사업지역으로 선정됐다"면서 "계약심사를 거쳐 다음 달 간판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내년 7월부터 설치에 들어가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항문화거리 지중화사업은 총 연장 1.9km에 달하는 3개 노선(젊음의 거리 500m, 개항문화거리 800m, 목항도취거리 600m)의 전신주를 없애고 땅속으로 선로를 묻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목포시가 21억5000만원(북구비 4억 포함), 한전측이 17억5000만원을 각각 투입한다. 이를 위해 시와 한전은 지난 7월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은 근대역사관 주변 보행길 2.1km를 정비해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국비 10억원과 시비 12억 등 총 22억이 투입



목포시가 '2020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응모해 지난 10월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시는 국비 10억을 포함해 총 22억원을 투입해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이곳에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된다. 목포시 건설과는 이와 관련 만호동과 유달동에서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김중식 목포시장은 "원도심 일대는

1897년 자주적으로 개항한 최초의 근대도시라든가 광장히 소중한 의미와 역사·문화적 가치를 가진 곳이다. 목포만의 차별화된 정체성이 잘 반영된 공간으로 조성해 근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의 롤 모델이 되도록 기본계획 수립과 각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 청년들의 취·창업 요람 다음달 문 연다

'청년·일자리 통합센터' 개소
다양한 교육·관련 정보 제공

지역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을 꿈 꾸게 될 '목포시 청년·일자리 통합센터'가 다음 달 문을 연다. 목포시는 사업비 2억8000만원을 들여 유달동 기업은행 유달출장소 2층을 리모델링해 455㎡ 규모의 통합센터를 조성했다. 통합센터는 1인 창업 공간 8개소와 공동 작업 공간 2개소를 비롯해 정보검색실, 세미나실, 전문가 상담실, 정충센터, 가상현실 체험방, 다목적 홀 등 다양한 공간들로 꾸며졌다. 통합센터는 앞으로 지역청년들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공간 제공과 함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핵심 역할이다. 또 청년정책, 취업 및 창업관련 정보 등 다양한 청년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단일 창구를 운영하고, 청년간의 소통과 연대의 장 마련을 위해 청년들의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목포시가 청소년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유달동 기업은행 2층을 리모델링해 '목포시 청년·일자리 통합센터'를 조성했다.

특히 지역 청소년들이 취·창업을 위해 올 상반기에만 전남에서 가장 많은 1429명이 목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통합센터가 개소되면 지역 청소년들의 유출을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시 일자리청년정책과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이 목포를 떠나지 않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취업, 창업, 협업, 소통, 힐링의 장이 되도록 공간배치에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많은 청년들이 애착을 갖고 통합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제2차 정례회 마무리 한 김휴환 목포시의회 의장 "목포 도약 기회 살리기 전력 다할 것"

"제11대 목포시의회 2019년은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시민들에게 염려와 실망을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김휴환(사진) 목포시의회 의장은 제352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7차 본회의 자리에서 "시 발전을 위해 노력도 했지만 시의원으로서 사명을 잃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던 한 해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발언은 의회 수장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진정된 반성과 사과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 의장은 "기회는 거북이처럼 왔다 갔다 하듯 넘어간다"는 말을 언급하면서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1000만 관광객 시대가 열릴 것임을 보여주는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다. 오랜 경기침체 뒤에 찾아온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내년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좀 더 힘을 내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상성을 강조했다. 그는 2020년 본예산 심의와 관련 "전신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전년에 비해 적어 5억5000만원을 삭감하는 데 그쳤



40건, 도시건설 35건 등 총 105건을 지적했다. 이 가운데 25건은 시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반드시 개선·보완돼야 할 사항들이어서 나름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어 그는 "8명의 의원들이 나서 해상케이블카, 달산수원지 매각, 인사, 성인지예산, 여성정책 등 각 분야별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날카로운 시정 질문을 펼쳤다"면서 "특히 장복성 의원의 지적은 시의적절했고, 시물레이션까지 제작해 대안을 제시한 점은 돋보였다"고 말했다. 새해를 맞아 김 의장은 "무겁고 힘들지만 한 발 한 발 내딛어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게 더 나아지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며 남다른 각오를 다졌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박용식 목포시의원
지방 의정봉사대상

박용식(사진) 목포시의회 의원이 지난 20일 목포신안면치호텔에서 열린 제249차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방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의정봉사대상은 전남 시·군의회 의회장이 주관하는 22개 시·군 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에 헌신한 의원에게 주는 명예로운 상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운영위원장직을 맡아 시민 생활, 복지,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날카로운 시정 질문을 펼쳤다는 등 남다른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사명감을 갖고 남은 임기 동안 초심으로 시민들께 드린 약속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더욱 이바지 하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062-412-2800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